

어린이 책꽂이

▲처칠=위기를 기회로 바꾼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의 일대기. 처칠은 군인, 장관, 수상 등을 역임하며 제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어 나치의 위협으로부터 유럽을 구했다. <아이세움·8천500원>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내 친구 뚱퍼=조선시대의 문인이자 학자인 박지원이 쓴 한문단편 '예혁선생전'을 작가 이은홍이 다시 쓴 책이다. 주인공 뚱퍼 아저씨는 보기에 더러운 일을 하지만 가장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교훈을 준다. <사계절·9천800원>

▲천년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나나라는 어린이의 일상생활을 사진과 그림을 소개하는 '나나의 첫 지식여행 시리즈'. 천년전 사람들의 생활상이 과학적인 자료와 객관적인 정보로 어린이들의 궁금증을 풀어준다. <큰북 작은북·8천원>

▲기발한 지식책='과일과 채소의 차이는 무엇일까'처럼 누구나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에 명쾌하게 답한다. 한 쪽 페이지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다른 한 페이지는 이 지식을 활용한 활동을 보여주는 독특한 편집으로 구성돼 있다. <웅진주니어·1만원>

▲시간의 종말을 위한 시종주곡=프랑스 작곡가 르비에 메시앙의 실화를 소재로 한 책이다. 2차세계대전 당시 포로수용소로 보내진 메시장은 열악한 조건에서 음악회를 열어 포로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다. <맑은 가람·8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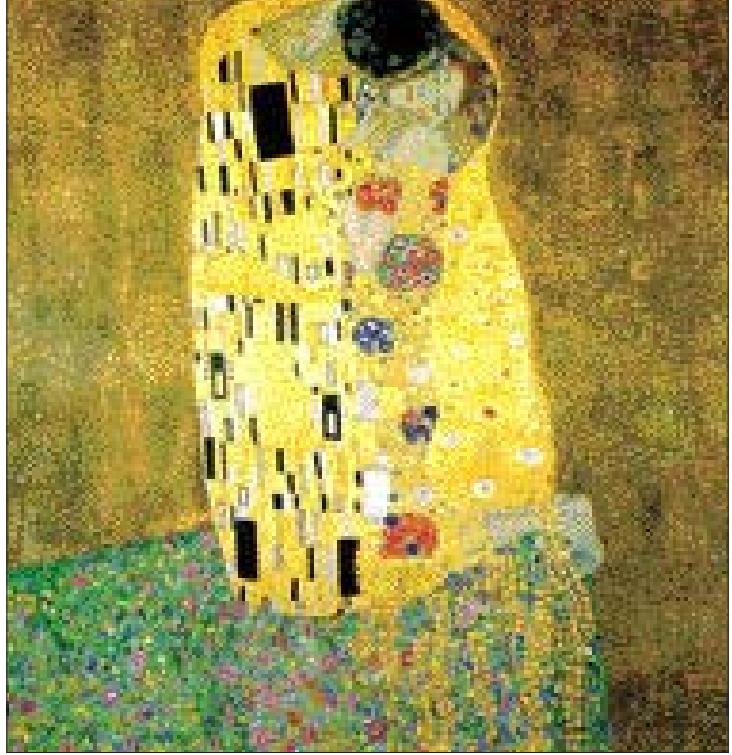
“사랑은 닿을 수 없는 모든 것이고 죽음을 거스르는 생명력의 활동”

사랑은 미친 짓이다 김훈·이윤기 등 공저

소설가 공선옥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동차 매연만큼이나 세상을 꽉 채우고 있는' 게 '사랑'이고, 셀 수 없이 많은 얼굴을 갖고 있는 게 '사랑'이다.

이윤기·김훈·김갑수·전경린·공선옥 등 16명의 작가들이 '사랑'에 대한 편들을 써내려간 에세이집 '사랑은 미친 짓이다'가 출간됐다.

필자들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속내를 다 드러낸 자전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들도 있고, 짧은 소설을 통해 사랑의 모습을 보



필자들은 '사랑'과 관련된 영화, 소설, 그림 등도 소개하고 있다.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

여주는 이도 있다.

파국을 향해 치닫는 격정적 사랑에 몸을 맡기는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소설을 써온 소설가 전경린은 자신의 작품 '불의 정거장'의 주인공 '무숙'을 통해 사랑을 이야기한다.

무숙을 비롯해 그녀 소설 속 주인공은 습관성 악물 중독자처럼 사랑 없는 삶을 견디지 못한다. 전경린은 그들은 통해 '삶(살아가는 것)은 순조롭게 죽어가는 것이고, 사랑은 죽음을 거스르는 생명력의 활동이라고 말한다.

소설가 김인숙에게 '사랑'은 사스의 공포가 짓누르던 중국에 머물렀던 그녀가 공포에 떨며 사랑하는 딸을 걱정하는 마음이고, 시인 김용택에게 '사랑'은 마음을 들뜨게 했던 아련한 첫 사랑 '그 여자'의 모습이다.

결혼은 미친 짓이 아니다'라는 표제로 쓴 이윤기의 글은 머리를 살피는 그는 '50년 전부터 익기 시작한 책은 나를 인간으로 만들었고, 30년 전부터 알고 지낸 나의 아내는 나를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팔불출이라고 스스로 고백한다. '아내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고, 이제 거의 아내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정도니 그가 사랑하는 아내에 우리에게 찾아 저승까지 다녀온 오르페우스의 그림을 독자에게 소개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 소설가 김훈은 '모든, 닿을 수 없는 것과 품을 수 없는 것을 사랑이라 부른다'고 말하고, 박범신은 유일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여겼고 그걸 '나 혼자 전부 갖는 것'으로 오해했던 시절에서 이제는 '유일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마음으로 폐쇄수정했을을 고백한다.

이 책의 또 다른 재미중의 하나는 각 필자들이 '사랑'을 테마로 선정한 다양한 작품들로 누구나 한 번쯤 들춰보게 만든다.

자신의 소설의 8회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학점임은 여든 살에 마흔 다섯 살 연인의 손을 잡은 채 숨을 거둔 작가 마르그리트 뒤라스의 '연인' '복도에 앉은 남자' '이게 다 예요'와 에르노의 '단순한 열정' '파격'을 소개했다.

그밖에 영화 '침밀밀' '울리브 나무 사이로' '남과 여', '블루 벨벳'을 비롯해 소설로는 파트리 모디아노의 '서커스가 지나간다', 한수산의 '부초', 스타팅의 '연애론'을 만날 수 있다. 또 오페라 '라 보엠', 클립트의 '키스', 영화 '그녀에게' 그림 '오르페우스 이야기'도 눈에 띈다. <섬안섬·1만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작가와 함께하는 책읽기

김용준 '근원수필'

생각해보면 그동안 나는 선물을 주고 받는데 참으로 인색했다. 생일 선물마저 어색했으니, 외적인 형식에 구애받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더해져 나도 모르는 사이 습관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차라리 속으로 끊끔 앓을지언정 물건으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웬지 쭉스러웠던 것이다.

그러나 명색이 시인이다 보니 선물 중에 책에 대해서만은 판대한 편이었다. 책을 주는 것이나 받는 것 모두 마음 한한 것이었으나.

내가 받은 책 선물 중에 잊지 못할 것은 어린 시절의 공책이다. 표지에 큰 글씨로 없을 무(無)자 하나 글박으로 달랑 써어져있는 일기장 같은 것이었다. 하드커버로 된 이 책 아닌 책은 페나 두꺼웠는데, 펼쳐보면 황무지처럼 활하니 먼지 바람이 이는 백지였다. 깨알처럼 글씨가 박혀있는 다른 책들보다 더 가슴이 설레었다.

그 책의 첫 장을 무었으로 채워야 할까 망설이던 시절이 바로 나의 10대 후반이었다. 텅 빈 백지는 언제나 두렵고도 설레는 신대륙 같은 것. 나는 차마 그 백지 위에 시 한 편 쓰지 못한 채 아끼고 아끼며 간직하기만 하다가 예전에 전전하던 험난한 20대에 잊어버리고 말았다. 또 하나 선물로 받은 책 중에 잊지 못할 것은 얼마 전에 받은 수필집 한 권이다. '근

진솔하고 소박한 생활 이야기



원수필'(범우문고)이라는 아주 작은 책인데, 실상자 수월암의 연작 스님께 받은 것이다.

이 책의 저자 김용준은 화가이자 수필가다. 월북자인 그는 1930년 대 '문장'지의 표지화를 그리기도 했으며, 삼허 태준의 절친한 친구이자 시인 정지용과도 막역한 사이였다. 문(文)·사(史)·철(哲)을

두루 겸한 김용준은 문학에서 '근원수필'(1948), 사학에서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1958), 창작에서 '춤'(1957) 등 선구적이고 빼어난 업적들을 남겼다.

그의 후 근원(近園)에서 제목을 따온 이 수필집은 그야말로 진솔하고 소박한 생활글이다. 그러나 이 수필집은 요즘의 산문집에서는 보기 드물 정도로 한편 한편이 체험을 바탕으로 깔끔하게 다듬어 살아있다. 처음 발간된 지 60년이 넘었지만 지난간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곳의 사람이 있고 생활이 있고 유미와 애수가 있으며, 더불어 날카로운 비판이 들어 있다.

그리고 '최복과 임희지', '오원일사' 등 흥미로운 미술사적 일화나 해박한 전문가적 소론 또한 진한 흥취를 돋우게 한다. 이 책의 후기에는 '남에게 해만은 끼치지 않을 테니 나를 자유스럽게 해 달라, 밤낮으로 기원하는 것이 이것이었건만 이 조그만 자유조차 나에게는 부여되어 있지 않다'고 써어 있다. 일제 강점기와 해방공간 당시 저자의 깊은 슬픔을 염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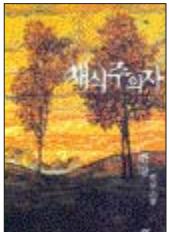
이 가을에 근원의 수필들을 다시 읽으마, 행간의 여백을 읽는데 자꾸 '없을 무'자 공책이 떠오른다.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펴내야 할 시집이 있다면 바로 이처럼 텅 빈 책, 백지 시집이 아니겠는가.

이 원규

<시인>

죽음에 이르게 한 식물적 상상력

채식주의자 한강 지음



여성들도 과학에 소질이 있다

두뇌는 평등하다 쉬빈저 지음



역사적으로 유명한 여성 과학자 이름을 대라고 한다면, '위리 부인' 외에 떠나 생각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여성은 선천적으로 과학에 소질이 없는 걸까?

미국 스텐퍼드 대학교 룬다 쉬빈저 교수는 쓴 '두뇌는 평등하다'는 이 같은 질문에서 비롯됐다. 저자는 고대로부터 여성 과학자들이 드문 것은 단지 성별 때문에 교육을 받을 수 없었고, 그래서 더욱 주류 과학계에서 철저히 배척돼 왔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과학계에서 배제됐던 여성 과학자들의 삶을 되살리는 방식으로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17세기 영국의 마거릿 캐번디시 공작 부인은 철학 관련 양서 수십권을 남겼음에도 남성 학자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았으며, 18세기에 활동한 곤충학자 마리아 지빌라 메리안도 평생의 연구를 통해 곤충학의 실증적 지평을 넓혔지만 캐번디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해문집·1만4천500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 헌대아극사거리 ▶ 예매 1544-0600

M관 쇠 객 (12세)

2관 쇠 객 (12세)

3관 킹 덤 (18세)

4관 블랙 달리 0 (18세)

5관 M (15세)

6관 히어로 (12세)

7관 어깨너머의 연인 (18세)/리지던트 이글 3 (18세)

8관 궁녀 (18세)

9관 바르게살자 (18세)

5월 1일부터 메가박스 대 학원이 풀로 됩니다.

• 이프로 주차장 이용 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에 한해) 3시간 초과 시 경정요금 부과

★ 무료 입장권-티켓만 있으면 풀로 됩니다.

영화관은 헌대아극사거리에 위치한 주차장입니다.

영화관은 헌대아극사거리에 위치